

보도시점 2025. 3. 3.(월) 12:00 / 배포 2025. 2. 28.(금) 08:30
< 3. 4.(화) 조간 >

던롭(젝시오) 골프 클럽 재판매가격 통제 제재

- 고객으로 가장해 대리점을 감시하고, 저렴하게 팔다 적발되면 물품공급 중단 -
- 시장가격을 통제하고자 비대리점에 대한 재판매를 금지하기도 -

※ 주말 엠바고 주의 : 3월 3일(월요일) 낮 12시부터 보도가능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던롭스포츠코리아(주)(이하 ‘던롭’)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구속조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18억 6,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던롭은 ‘젝시오(XXIO)’, ‘스릭슨(Srixon)’ 등 일본 인기 골프 브랜드 제품의 수입·유통업자이며, 던롭이 유통하는 ‘젝시오(XXIO)’의 골프 클럽은 국내 여성 골퍼들에게 인기가 매우 높다.

< 던롭이 취급하는 주요 골프 클럽 상품 >

		
젝시오 (남성용)	젝시오 (여성용)	젝시오 X (남성용)
		
젝시오 PRIME RE (남성 시니어용)	젝시오 PRIME RE (여성 시니어용)	스릭슨 Z 시리즈 (남성 상급자용)

던롭은 이러한 시장지위를 이용하여 대리점에 골프 클럽의 온·오프라인 판매가격을 지정하여 통보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자신들이 판매가격을 강제할 수 없는 비대리점, 즉 던롭과 거래관계가 없는 골프 클럽 판매점에는 대리점의 골프 클럽 재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함으로써 대리점을 포함한 판매점 사이의 가격 경쟁을 방해하였다.

<①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구체적으로, 던롭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3년여간 ‘젝시오(XXIO)’와 ‘스릭슨(Srixon)’ 브랜드 골프 클럽의 온·오프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정해 대리점에 통보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자사 골프 클럽의 공급 중단, 대리점에 지급하던 금전적 지원의 삭감, 이미 공급한 골프 클럽의 회수, 대리점과의 거래 종료와 같은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특히, 던롭은 이러한 최저 판매가격 및 제재기준의 통보와 관련하여 생길 법률적 문제를 우려하여 관련 내용을 문서나 사진 등으로 전달하지 않고 증거가 남지 않는 구두로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제재를 할 때 판매가격을 위반한 상품뿐만 아니라 인기상품인 젝시오(XXIO) 골프 클럽도 함께 공급을 중단하거나 회수하도록 함으로써 대리점의 판매 가격 준수 부담도 가중시켰다.

통보한 후에 던롭은 조사원들을 고객으로 가장시키고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게 한 뒤, 해당 매장의 가격을 조사하게 하는 방식(미스터리 쇼퍼)으로 연 7~9차례 대리점의 오프라인 판매가격을 조사하였다. 또한, 온라인 판매 상품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매일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제품 가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판매가격을 감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불시 점검에 적발된 대리점에 대해서는 통지한 제재기준대로 젝시오를 포함한 골프 클럽 공급을 중단하거나, 금전적 지원을 삭감하는 것과 같은 불이익을 부과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서, 유통 단계에서 판매점 간의 가격 경쟁을 차단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위반된다.

<② 구속조건부거래 행위>

또한, 던롭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대리점들이 비대리점에 쥘시오(XXIO)·스릭슨(Srixon) 골프 클럽을 ‘도도매’(재판매)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비대리점은 던롭과 직접적 거래관계가 없기 때문에 던롭이 공급 중단과 같은 불이익을 줄 수 없어 판매가격을 통제하기 어렵고, 이들이 가격을 자유롭게 낮추면 전체적인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촉발되는 측면도 있어서 던롭은 비대리점의 판매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왔다. 던롭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말까지는 앞서 본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일환으로 비대리점이 지정가격보다 저렴하게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해당 제품의 바코드를 확인하여 그 비대리점에 재판매를 한 대리점에 불이익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2022년 1월부터는 이를 강화하여 비대리점에 대한 도도매를 전면 금지하였다.

던롭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오프라인 방문 조사 및 온라인 상품 검색을 통해 대리점들의 도도매 여부를 감시하였고, 적발된 대리점에 대해서는 공급 중단(위반 상품뿐 아니라 쥘시오 상품도 중단)과 같은 불이익을 부과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거래상대방의 거래처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구속조건부거래 행위로서, 유통 단계의 가격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7호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6개 골프 클럽 판매업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을 제재함으로써(과징금 최대 4억 원) 해당 시장의 거래 관행을 시정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당시에는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던 던롭이 동일·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실행한 것으로, 공정위는 이에 대해 기존보다 엄중한 제재를 하였다. 이번 제재를 통해 시장에 법 위반행위의 재발에 대한 명확한 경고가 전달됨으로써 2009년 제재 이후 잠시 느슨해진 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일깨워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조치로 골프 클럽 판매점 간 자유로운 가격 경쟁이 촉진될 수 있게 되었는바, 소비자들이 더욱 저렴하게 골프 클럽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골프 시장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는 한편,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을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붙임> 던롭스포츠코리아(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에 대한 건 세부 내용

담당 부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책임자	과 장	양동훈 (02-2110-6120)
		담당자	사무관	김혜인 (02-2110-6129)
			사무관	안영제 (02-2110-6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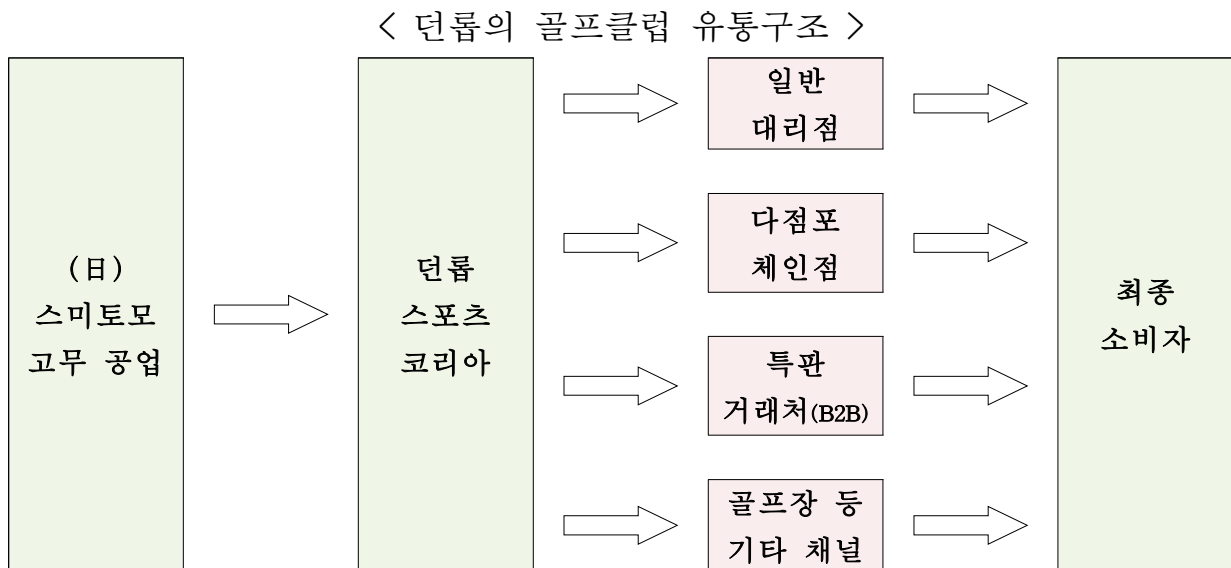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1 관련 시장 현황

- (시장현황) 골프 클럽 시장은 골프 인기 상승에 따라 2020년 이후 크게 성장하였다. 골프 클럽 시장은 5개 이상 브랜드의 시장점유율이 10%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는 브랜드 간 경쟁이 치열한 시장인데, 던롭은 지속적으로 10%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하였으며, 특히 여성 소비자의 선호가 매우 높다.
- (유통구조) 던롭은 일본의 스미토모 고무 공업으로부터 골프 클럽을 수입하여, 주로 대리점(일반 대리점과 다점포 체인점으로 구분)을 통해 국내의 최종 소비자에게 유통하고 있다.



* 대리점(일반 대리점, 다점포 체인점)이 97%의 비중 차지(매출액 기준, 2020~2023)

2 행위 사실

-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던롭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대리점에 골프 클럽*의 온·오프라인 판매가격을 지정하여 통보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였다.

* 이하에서 '골프 클럽'은 이 사건 행위 대상이 된 젝시오(XXIO)·스릭슨(Srixon) 브랜드의 드라이버, 아이언, 우드, 유틸리티(하이브리드)의 4종을 의미

- 이 가격은 매년 초 정하고, 매월 시장 상황 변동을 반영하여 필요시 조정하였다. 또한 온라인 가격을 오프라인보다 소폭 높거나 동일하게 유지해, 온라인에서 가격을 확인하는 소비자들이 오프라인 대리점(골프 클럽의 주 유통채널)의 판매가격이 비싸지 않다고 인식하도록 하였다.
- 아울러, 위반이 확인되면 공급 중단, 금전적 지원의 삭감, 상품 회수, 거래 종료와 같은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 불이익 조치는 누적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되었으며, 대리점의 유형별로 달리 마련되었다. 일반 대리점에는 공급 중단, 상품 회수와 같은 조치가 적용되었고, 다점포 체인 대리점에는 이에 더해 금전적 지원을 삭감하기로 하였다.
- 재판매가격 위반 대상이 된 상품뿐 아니라, 던롭의 상품 중 가장 수요가 많은 제시오(XXIO) 골프 클럽도 함께 공급 중단 또는 상품 회수하도록 하여, 불이익 조치의 효과를 높이고 재판매가격의 구속력을 강화하였다.

□ (구속조건부거래 행위) 던롭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대리점이 비대리점에 골프 클럽을 도도매(재판매)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 상기 재판매가격 위반과 마찬가지로, 도도매를 한 대리점에 대해서는 공급 중단, 다점포 체인 대리점에 대한 금전적 지원 삭감, 거래 종료와 같은 불이익을 줄 것을 통지하였다.

□ (대리점 감시 및 실제 불이익 조치) 던롭은 대리점의 위 사항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시 점검을 진행하였다.

- 오프라인 조사를 위해 던롭은 외부 시장조사 전문업체와 계약하고, 조사원들을 고객으로 가장시켜 매장을 방문하게 하였다. 점검은 연 7~9차례 이루어졌으며, 조사 대상은 대리점에 더해 던롭의 골프 클럽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비대리점도 포함되었다.
- 조사원들은 매장을 방문하여 자연스러운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 던롭 외에 다른 브랜드 상품의 가격도 문의하고 흥정도 한 차례 시도하도록

교육받았으며, 판매원과의 대화는 녹취되었다. 흥정 후 가격이 던롭이 정한 제재 기준 가격 미만인 경우 조사요원은 해당 상품을 구매하고, 던롭에 송부하여 불이익 조치의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하였다.

- 한편 온라인 조사는 매일 던롭 직원이 직접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던롭 골프 클럽의 가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 실제로 재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은 대리점에 골프 클럽 공급 중단, 금전적 지원 삭감과 같은 제재를 가했으며, 비대리점에 골프 클럽을 도도매한 것이 적발된 대리점에 공급 중단과 같은 불이익을 부과하였다.

3 위법성 판단

□ 던롭이 재판매가격 준수를 요구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불이익을 준 것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하도록 그 밖의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

-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유통 단계에서의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므로 위법하다.
- 던롭은 이 사건 행위로 골프 클럽 판매점 간의 서비스(시타, 피팅 등) 경쟁이 증대되어 소비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주장하였으나, 그러한 효과가 가격 경쟁 제한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다 크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정당한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 또한 던롭이 대리점으로 하여금 비대리점에 골프 클럽을 재판매(도도매)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인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한다.

-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는 유통채널 간 가격 경쟁을 저해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고 대리점의 거래상대방 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며, 특히 위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와 함께 실행되어 경쟁제한성이 가중된다고 판단되었다.

4 적용 법조 및 조치 내용

□ 적용 법조

-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
- 구속조건부거래 행위: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2] 제7호

□ 조치 내용: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 및 과징금(18억 6,500만 원)

* 단롭이 향후 동일·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

** 단롭이 거래 중인 대리점에 위 행위금지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리도록 함으로써 대리점이 단롭의 법 위반행위를 감시하도록 함

5 의의 및 기대 효과

- 이번 조치는 2009년 6개 골프 클럽 판매업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을 적발·제재*한 이후 다시 유사한 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해 시장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엄중한 제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2009년 골프 클럽 등 판매사업자들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제재 내역

연번	당시 사업자명(브랜드명)	제재내역
1	한국캘러웨이골프(캘러웨이)	과징금 4억 원
2	테일러메이드코리아(테일러메이드)	과징금 2.9억 원
3	아쿠쉬네트코리아(타이틀리스트)	과징금 2억 원(골프공 관련)
4	덕화스포츠(미즈노)	과징금 1.3억 원
5	오리엔트골프(야마하)	과징금 1.1억 원
6	혼마골프왕도(혼마)	시정명령(대리점에 불이익 준 사실 없음)

- 향후 판매자 간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이 더욱 저렴하게 골프 클럽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일반현황 및 관련 법 조항

1. 던롭스포츠코리아(주)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설립일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2021년	2022년	2023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11. 3. 1.	2000	113,194	141,661	152,406	13,027	18,798	16,523

2. 관련 법 조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9. (생략)

20. “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하도록 그 밖의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 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6. (생략)

7.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8.~10. (생략)

제46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피해보다 큰 경우 등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생략)